

2011년 초 겨울 늦은 시간, 대학로의 어느 찻집에서 이 프로젝트가 기획되었다.

그날 긴 저녁 모임을 함께 한 후 커피까지 마시고 귀가하려는데 일행 중 하나였던 건축가 이종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커피 한 잔 하자면서 팔을 잡았다. 오래 전부터 알던 사이였지만, 뜬금없었다. 이 밤중에 또 커피를? 술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하면, 술이 아니라 커피를 두고 해야 할 이야기였다. 맑은 머리가 필요했고, 신중한 견해가 요구되었던 까닭이다.

이종호 교수는 뜻밖의 질문부터 꺼냈다. “북한 연구, 통일 연구는 북한학과 교수만 하는 겁니까?”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시선을 피하며 우선 커피를 마셨다. 시간을 벌려는 요량이었다. 질문의 의도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해야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종호 교수가 북한 문제에 관심을 지니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이수근문화상을 비롯해서 수차례의 건축가협회상, 건축문화대상 등을 수상한 유명 건축가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의외로 진지했다. 나름 많은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고 논리의 깊이가 있었다. 그는 북한과 통일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후 제안을 했다. 핵심은 한반도 미래에 대해서 여러 학문 분야의 다양한 시각과 상상력을 결합하자는 것이었다. 그것이 나를 붙잡은 이유였다. 내가 명색이 북한학과 교수이니 내가

나서서 그런 연구 모임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다.

반가웠다, 당연히. 북한 연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움직임 을 주도해야 할 텐데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먼저 그런 제의를 하니 부끄럽기도 했다. 더욱이 북한과 통일 문제야말로 학제간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분야 아닌가. 그러니 그러자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았다. 참여자가 너무 많으면 토론에 지장이 있으니 다섯 명 정도로 하기로 했다. 소위 북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 아예 연구를 해 본적이 없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도 포함하는 것이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북한 전문가로는 북한 언론의 권위자로서 “통일전망대”를 23년간 진행하고 있는 김현경 MBC 부장과 인류학자로서 북한의 사회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수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다른 분야 전문가로는 환경계획학을 전공하고 도시개발과 행정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결국 경제가 전공인 나와 건축이 전공인 이종호 교수를 포함하면 경제, 건축, 언론, 사회, 행정 등 다섯 분야의 전문가가 모임 셈이다.

연구진 전체가 처음으로 모인 것은 2011년 3월 25일이었다. 첫 모임이었지만 모임의 취지는 알고 모인만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었다. 긴 토론이었지만, 연구진이 동의한 결론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의 역사성을 인정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자. 기존의 통일에 대한 연구는 남한을 모델로 삼아 북한을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할 대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남과 북에

대한 이분법적인 접근은 상상력의 폭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남한을 대안으로 삼아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에만 연구를 국한시키지 말고 남한과 북한의 역사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 모두에게 새로운 좋은 사회가 된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의 과정은 결국 북한 주민들에게 변화에 대한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될 터인데 현재 남한의 모습은 북한 주민에게 대안으로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남한의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 가진 부정적 인식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미래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결론은 연구 모임의 결과를 책으로 출간하자는 것이었다. 연구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라도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연구 주제로는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되었다. 하나는 “서울이 평양에게, 평양이 서울에게”라는 주제였다. 서울과 평양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양 극단의 사상이 투영된 21세기의 대표적인 두 도시라고 할 수 있으므로 두 도시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은 통일의 시기에 보다 나은 서울, 보다 나은 평양, 나아가 보다 나은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 이는 서울의 논리를 평양에 이식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평양의 변천과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한 상황에서 두 도시가 서로에게 전해줄 이야기가 있는지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경계의 기회”(border opportunity)로 요약되었다. 무릇 대안의 힘은 경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는 남북한 사이의 강력한 경

계인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가 새로운 대안의 힘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이고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두 체제의 공존이 상당기간 동안 필요할 수 있으므로 DMZ를 생산적인 완충지대(buffer zone)로 발전시키자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DMZ를 기회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보자는 주제였다.

2011년 4월 18일의 두 번째 모임에서 “서울이 평양에게, 평양이 서울에게”를 연구 주제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차후에 한반도로 논의를 확대하더라도 일단은 서울과 평양이라는 두 도시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의 보고서가 미래 연구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대도 공유하였다. 따라서 “해야 한다”는 당위적 접근이나 제안보다는 우선 서울과 평양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했고, 비전보다는 현상의 관찰을 먼저 하기로 했다. 그 후 여러 차례의 연구 모임을 진행하였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기도 했다.

물론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다. 물리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모임의 날짜를 잡는 것이었다. 워낙 바쁜 사람들인데다가 서로 다른 영역에 있다 보니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어려웠던 것은 ‘소통’이었다. 연구 중간과정에서의 아이디어, 초고, 중간원고 등을 놓고 토론을 했지만, 말이 잘 통하지 않았다. 학문 분야마다 이야기하는 방식이 달랐고, 사용하는 단어도 달랐기 때문이다. 설령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의미에 차이가 있었다. 한참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어려웠고, 오래도록 토론을 해도 칠판에 돌듯 서로 다른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었다. 이제 대충이나마 ‘소통’이 되려는데, 작업이 끝났다.

연구 모임이 중간에 좌초되지 않고 결과물까지 내놓을 수 있게 된 데에는 동아시아연구원의 물적 인적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모임 및 연구에 소요된 경비와 장소를 선뜻 제공해 주신 이숙중 동아시아연구원 원장님께 감사드린다. 연구 모임을 진행하다보니 모임의 연락에서부터 토의 결과의 기록과 정리, 그리고 출판에 이르기까지 본의 아니게 여러 명의 동아시아연구원 직원에게 폐를 끼쳤다. 가정과 직장 일을 병행하느라 늘 시간이 부족한데도 조찬 모임까지도 직접 참석하면서 토론 준비를 완벽히 챙겨준 김하정 팀장이 고맙다. 올해 초 김 팀장은 연구원을 떠났는데, 아직도 김 팀장의 꼼꼼한 일습씨와 화사한 미소가 때때로 그립다. 최은혜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최 연구원은 연구 모임이 처음 태동될 때부터 헌신적 지원을 해주었는데, 중간에 결혼과 출산으로 마지막을 함께 하지는 못했다. 원고의 교정과 편집, 출판을 책임진 신영환 출판팀장의 수고도 감사하다. 김양규 연구원의 기여는 절대적이다. 비록 연구의 중간과정에서 지원을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함께 했던 것처럼 열의와 성의를 보여 주었고, 최종 출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매 과정이 김 연구원의 손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이 작업은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의 학제간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작품이다. 북한 혹은 통일이라는 주제가 다면적임을 고려하면 연구 역시 하나의 영역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제는 '소통'의 기술도 좀 익혔으니, 다음에는 보다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붙은 까닭이다.

2013년 5월
조동호